



# 중국 황산기행



진 준 혁

(국립공원협회 덕산지부장)

명 나라때의 지리학자이며 여행가인 서하객은 30여년에 걸쳐 중국을 두루 돌아보고 이렇게 말 하였다고 한다. “오악(태산·형산·항산·숭산·화산)을 올라본 사람은 그산의 아름다움에 취하여 다른산은 오르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황산을 올라본 사람은 그 오악조차 오르려 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황산은 중국의 대시인 이백과 두보에게도 끝없는 사랑과 칭송을 받았는데 이는 괴암, 기송, 운해, 온천이 사계절과 조화를 이뤄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황산의 면적은 154평방 킬로메타이며 주위가 120킬로미터에 달하는 큰산으로 72개의 봉우리가 저마다 뿔내며 솟아있고 천도봉(1810) 연하봉(1860) 시신봉

등 1500미터 이상의 봉우리만도 30여개나 된다고 한다. 비오면 비 와서 좋고 눈덮힌 산은 신비로와 좋고 가을산은 황홀하리 만큼 멋있기에 좋고 안개속에 새싹이 돋아나는 봄 또한 싱그러워 좋다는 황산! 이 산을 오르기 위해 우리 일행 18명은 황산시 외곽의 한적한곳에 자리잡은 국제호텔에 도착하였다.

긴장과 설레임에 피곤하여서 인지 아주 단잠을자고 창문을 여니 화창한 날씨에 싱그러운 풀냄새가 봄바람에 기분 좋게 스며든다. 황량한 벌판에 덩그러니 호텔이 있을 뿐 주위가 너무나 한적하였다. 호텔과 담하나 사이에 교회가 보여 기쁜마음에 교회로가서 잠긴문을 흔드니 나이드신 목사님이 반갑게 맞이하며 2층으로 안내하였다.

짙막한 기도로 황산등반을 무사하게 마칠수 있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원하였다. 목사님과과는 말이 통하지 않아 미소로 마음을 주고 받으며 교회문을 나섰다. 상쾌한 날씨만큼이나 기분좋은 아침이다.

08:00시 정각 호텔을 출발한 버스는 우리나라의 한적한 시골길 같은길을 달린다. 논과 밭에는 노란 유채꽃이 만발하였고 감나무와 밤나무가 드문드문 있었으며 계곡에는 대나무가 많이 보인다. 해발 3502여미터의 야산에 차밭을 일구어 여기저기 밀집모자를 쓴 아낙네들이 차잎을 따고 있었다. 차밭 위로는 키작은 잡목이 있을뿐 큰 나무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화목으로 베어져 그렇다고 한다.

호텔을 떠난지 30여분쯤 아주 깨끗한 강을 옆에끼고 굽이굽이 돌아가고 있었다. 신한강이라는 이 강은 흡사 우리나라 강원도의 동강과 같았다.

차밭 위로는 빨간 연산홍과 철죽, 그리고 하얀 싸리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간간히 시골동네가 보인다. 모든집들이 까만 기와지붕에 벽은 하얀 회칠을 하였는데 이는 오행설에 화재를 예방함이라 한다. 한참을 더 달려가니 석계라는 마을에 도착하였다. 이곳에는 까만 개구리가 독사와 함께

생활하여 영물로 취급한다고 한다.

호텔을 출발한지 한시간 반이 지나서 탕구라는 향에 도착하였다.

중국의 행정단위는 성, 현, 진, 향, 촌으로 우리나라 면소재지 같은 곳으로 중학교가 있었으며 스키 나무가 가로수로 아름다운 인상을 주는 산속의 도시였다. 이곳에서 5분 거리에 황산 일주문이 있었다.

“세계문화 자연유산”이라는 큼지막한 입간판이 붙어있는 이곳부터는 수많은 커브길로 오르막이 계속되고 있었다. 스키나무와 대나무가 주종을 이루는 산의 오른쪽으로 백장폭포가 보였다. 갈수기라 지금은 물이적어 실폭이지만 물이 많은 여름철에는 위용을 자랑하는 경치가 장관이라고 동행하는 가이드의 설명이다. 여기서도 몇구비를 돌아 백장폭포 위를 지나서 라일락꽃이 만발한 마루턱에 오르니 멀리 황산의 위용이 장엄하게 눈앞으로 펼쳐지기 시작한다. 오른쪽으로는 우리가 30여분 올라온 무수한 커브길이 깎아지른 절벽아래로 그림같이 아름다워 보였다.

해발 9002여미터의 산마루턱을 넘으니 계곡에는 온통 대나무밭이었다. 노란 새싹이 돋아나 참으로 보기에 좋았다. 내리막길로 조금가니 황산을 올라가는 운곡케이블카에 도착하였다.

이 케이블카는 1986년 7월에 완공되었으며 백아령까지는 2,804미터이고 탑승정원이 40여명이며 표고차 773미터로 8분이 소요되고 요금은 중국화폐로 편도80원에 보험료 2원이 추가되며 왕복은 130원이었다. 정원을 정확하게 지켜서 우리일행 1명은 다음에 올라오기로 하고 출발하였다. 조금은 불안하지만 아래로 펼쳐지는 신록의 푸르름과 위로 보이는 절경에 금방 황홀경의 경지에 빠지고 만다. 왼쪽 아래로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오르는것이 아스라하게 보인다. 중국인들 특유의 어깨에 걸쳐매어 짐을 나르는 사람이 많이 보였다. 걸어오르는 사람중 반은 등반객이고 반은 짐꾼같았다. 산넘어 북해호텔까지 생필품과 판매할 기념품을 짐져서 운반한다고 한다. 사람

이 운반하는것이 케이블카 운임보다 싸기도 하고 워낙 많은 사람이 케이블카로 오르기 때문에 짐은 나를래야 나를수가 없다고 한다. 많은 나라에 가서 케이블카를 타 보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는 처음이다. 더 할말없이 아름답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이러한 아름다움을 신선들이 산다는 선경이라 말하리라.

백아령에 도착하여 케이블카에서 내리니 유난히 하얀 목련꽃이 우리를 맞아주었고 수많은 사람이 북적거렸다. 시골장날 같은 풍경이었다. 짐을 나르는 사람이 많고 길가에 좌판을 벌린 사람이 많아 장날을 연상케하였다.

황산의 등산로는 모두가 계단식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폭 30센티미터에 길이 1.5미터의 시멘트나 화강암으로 만들어 있었다. 이런길에 익숙치않은 우리들은 여간 부담스럽지 않을수 없었다. 이곳에서 우리가 숙박할 북해호텔까지는 내려가는 길로 20여분이 소요되었다.

북해호텔은 2급호텔로 별이 3개



▲ 북해호텔 앞에서의 필자

그러져 있었다. 주위에는 기념품 판매점을 비롯하여 위락시설이 모두 잘 갖추어져 있었고 북해호텔은 이날도 만원사례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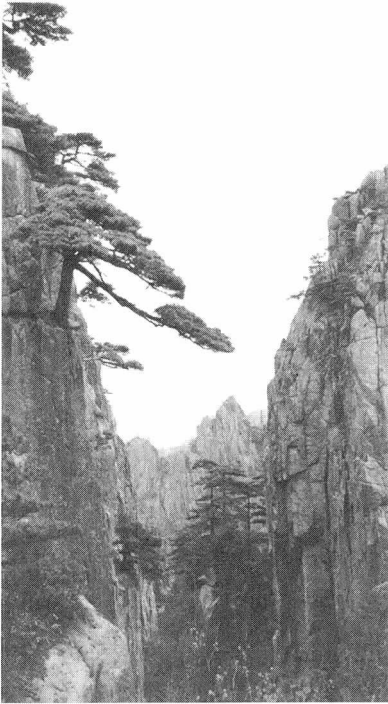
해발 1,860미터의 광명정 아래에 자리한 북해호텔은 삼태기 가운데 같이 포근하고 안락한 모습이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제일많은 계절은 봄과 가을로 이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대고 있었다. 방에 들어가 대충 짐정리를 하고 푸짐한 점식시사를 마치고 호텔앞의 오른쪽인 시신봉을 오르기 위하여 출발하였다. 계단길을 20여분 오르니 괴암과 기봉이 눈앞에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수직으

로 솟아오른 바위봉우리의 아래 계곡은 천길만길 낭떨어지기로 현기증이 날정도로 까마득하게 보인다. 특히 앞에 보이는 20나한상은 신선이 마주앉아 바둑을 두고 재상이 뒤에서 보고 있는 형상으로 아름다운 자태를 더해준다. 황산이 일흔두개봉이라드니 이곳에서 바라보는 봉우리만도 헤일수 없이 많다. 그 봉우리 모두가 괴봉이고 기봉이다. 어떻게 저런 봉우리가 생겨날 수 있을까? 오직 감탄할 뿐이다. 또한 바위틈에서 몇 백년은 자랐을 기이한 형태의 소나무가 어우러져 더할나위 없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거대한 분재를 보는것만 같다.

정상 바로 아래에 “연심쇄”라는 곳이 있었다. 이곳에는 자물쇠를 파는 곳으로 긴 쇠사슬을 바위에 단단하게 고정시키고 거기에 몇백개의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경치가 수려한 곳에 “사랑의 흔적”을 남기고자 함이라 한다. 신혼여행을 온 부부부터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사랑의 맹서를 한 연

인들, 혈연이있는 친척과 그리고 동고동락하는 친구들을 위하여 인간의 광범한 사랑과 대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일심동체로 융화시키고자 함에 있다한다. 방금 채운듯한 광채나는 신혼부부의 자물쇠가 있는가 하면 수십년이 지난것같은 빨갛게 녹슨 자물쇠도 있었다. 모두가 소망대로 변치않는 사랑과 우정과 친정과 향정이 영원하기를 기원해 본다. 이곳의 발아래는 차라리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야 옳을 정도로 수직의 깊은계곡이 있었다. 하나님의 신비하고 오묘한 솜씨가 아니고는 벗어질 수 없는 걸작품이 황산에 모두 있는듯 기묘묘한 봉우리와 바위들이다.

시설한지 오래된 것 같은 철난간에 의지하여 조심조심 한발작 한발작 내려오는 길이 더욱 어렵고 오금이 저린다. 현기증이 나는지 어떤 아주머니는 아예 털썩 주저앉아 양무릎에 머리를 묻고 어찌할바를 모른다. 부축여 내려오자니 심장이 멎을듯 긴장이 된다.



▲ 시신봉의 대협곡

호텔앞으로 되돌아와서 오른쪽의 시신봉과 왼쪽의 청량대 사이의 제일 큰 계곡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 앞에서 끝없이 멀리보이는 깊은계곡과 높은바위봉을 감상하다가 청량대로 향하였다. 청량대는 일출이 가장 아름답다는 곳이지만 내일 아침의 일출구경을 포기하고 오늘

오르기로 하였다. 이곳에도 열쇠장사꾼과 음료수와 기념품을 파는 간이매점이 있었다.

청량대 역시 신비한 아름다움 바로 그것이었다. 누구의 입에서나 아 - 하는 감탄사가 연발로 터져나온다. 검은바위봉과 푸른 소나무만으로 연출된 단순함이지만 그 오묘한 아름다움은 무엇보다도 비길수가 없을만큼 아름답다.

어느곳을 보아도 실증이 나지않고 아름다움이 즐겁다. 석양무렵 아쉬움을 뒤로하고 호텔로 돌아왔다. 호텔앞에서 청주에서 왔다는 산악인 10여명을 만났다. 걸어서 올라왔다는 그들은 온몸이 땀에 젖어 후줄근하니 녹초가 되어 먼저은 우리보고 어느곳을 어떻게 가야하느냐고 많은 질문을 하였다. 가이드도 없이 올라온 그들에게 지도와 일정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나니 산속의 호텔에 어둠이 깃든다.

한국사람들만을 위한 식당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내일의 등산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적당한 피곤함에 단잠을 이룰 수 있었다.



▲ 수령 600년의 소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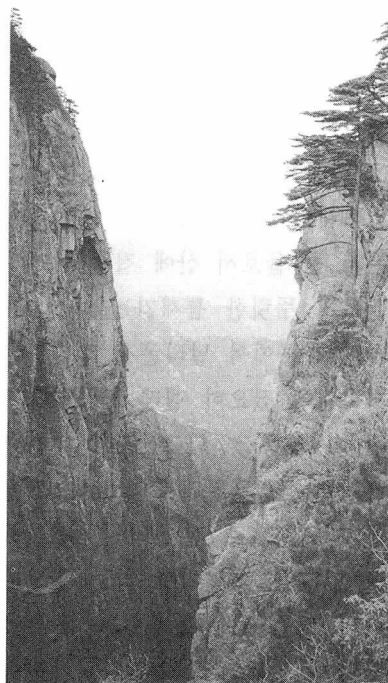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운해가 깔린 전망대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경치를 볼수 있었다. 필설로는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였다.

아침 식사 후 08:00시 정각에 호텔 뒷쪽의 배운대를 향하여 출발하였다. 등산로는 흑면지 하나없이 깨끗하였다. 길가에 있는 나무는 대나무를 쪼개어 만든 망으로 보호하였고 곳곳에 산림보호요원이 빗자루로 등산로를 쓸고있었다. 나무는 물론 풀포기 하나까지 철저히 보호하고 있었으며 휴지조각은 물론 담배꽂초하나 없는 공원이였다. 능선에 올라서니 오른쪽은 천야만야 낭떨어지로 거의 수직에 가까운 절벽이였고 그 끝이

보이지를 앓는다. 이곳에서도 바위와 소나무의 아름다운 조화를 수없이 감상할 수 있었다. 호텔을 떠난지 40여분 후에 배운대에 도착하였다. 이곳 저곳 많은 사진을 찍고 비래석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비래석은 높이 12미터 무게 360톤의 큰 돌로서 산에 접촉하는 하단부에 뚜렷한 틈새가 있어서 마치 다른곳에서 날라온것 같다하여 이름지어 졌으며 텔레비전 연속극에 자주 등장한다고 한다. 비래석 옆에는 산림경찰대가 있었다. 그들은 망원경으로 산 곳곳을 감시하고 있었다. 이곳이야 말로 황산의 거의 모든곳을 볼수있는 곳으로 출입이 통제되고 있었다. 사진을

찍고 싶은데 들어갈 수 있느냐고 우리말로 물었더니 눈치빠른 초병은 웃으면서 들어 오라고 한다. 이곳은 바람이 어찌나 세게 부는지 나무는 단한그루도 없고 몇포기의 풀이 푸석바위에 붙어 있을뿐이다. 중국인들은 한명도 못들어가는 곳을 우리 일행만 들어간 곳이라 서둘러 사진몇장을 찍고 나왔다. 의



국인에 대한 배려가 참으로 고마웠다.

10시 30분경 해발 1,860미터의 광명정에 도착하였다. 바로 아래에는 높다란 통신안테나가 있었고 주위에는 식당과 매점이 있었다. 이곳에서 연화봉, 옥병루, 천도봉이 멀리로 보였다. 참으로 아름답다는 말을 다시한번 할 수 밖에 없는 잘그린 한폭의 그림이었다. 이곳에서 작은 등성이를 하나 넘어니 백아령의 케이블카에 도착하였다. 정각 12:00시에 케이블카에서 내려 도보로 200여미터를 가니 운곡사가 있었다. 전원 무사히 등반을 마친것이다. 황산 아름답고 신비한 산이다. ▲▲

▶ 배운대의 협곡